제주도 무가 연구의 검토와 전망 (2)

1. 서론

필자는 기존에 주로 주요 연구자의 저작을 중심으로 제주도 무가 연구의 현황을 검토한 바 있다.(한창훈, 2000) 그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박사 학위 논문들이 몇 가지 출현하였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 무가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연구사적 전망을 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구비문학이나 민속학은 학문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무엇보다도 학문 후속 세대의 숫적 부족 문제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세대 학자들의 퇴임이나 은퇴 문제와 겹쳐 있으므로 앞으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과 무가 연구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우리의 연구 자산이 되는 자료 자체의 수집 정리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 그렇다면 다음의 과제는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이론적 연구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실제 자료 조사 경력도 있으면서 이론적 작업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는 연구자군의 출현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자 세 분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석사 논문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제주도 무속이나 무가를 연구하여 박사 학위 논문에 이르렀다.[2] 출신지와 성장지가 제주도로 환경에 익숙하고, 방언을 포함해 연구 대상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기초 자료 수집 조사를 출발로 하여 이후 이론화를 지향하는 연구에 전념했고, 지금도 이 분야 연구의 최전선에 있다.

현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제주도 무속이나 무가 연구자가 많이 있다. 이 세 분의 연구는 일반인들은 물론 이들 후속 세대들에게 많은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여기서 굳이 이 세 분의 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제주도 무가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2. 문무병의『제주도 당 신앙 연구』

문무병은 1984년 제주도 굿을 다룬 석사 학위 논문을 전후하여, 제주도 무속과 무가 연구에 뛰어 들어, 1993년 제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3] 연구 목록이나 실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로 신앙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충실한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

---

1) 물론, 지금도 특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나 기타 제주도 기관들을 중심으로 좋은 자료집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료 자체의 성격이나 제보자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의미 있는 새로운 자료 발굴은 앞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2) 이런 점 때문에 유달선(1994), 김영숙(2002) 등을 본 검토에서는 제외하였다. 때문에 본 논의의 검토에서의 제외와 이들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들 논의에 대해서는 이후 보충 검토를 기약한다.

3) 이 논문은 이후 출간 되었는데, 서문을 보면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문무병(2008) 서문 참조..

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박사 학위 논문인『제주도 당 신앙 연구』도 이런 연구 여정 안에 위치한다. 제출 학과는 국어국문학과이지만, 민속학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은 '제주도 각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본향당과 그 밖의 가지당들을 조사하고, 여기에서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 제주도 당 신앙의 체계를 밝히'(1면)고, '당 본풀이를 통하여 제주 사회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화, 당굿으로 계승되고 있는 당 신앙의 사회 통합 기능을 밝히'(3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한 마을, 한 사회 집단의 신앙 체계를 고찰하고, 전체로서 제주도 무속 신앙의 전모를 밝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7면)한다. 연구 대상은 광범위하여 조사 당 숫자만 250개에 이르고(25-28면 목록 참조), 연구 방법은 해석 신화학과 구조.기능주의 관점을 든다. 크게 보아 인류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자는 250개의 개별 당을 조사한 후, 제주도의 당신을 산신계, 농경.치병신계, 사신계, 도깨비신계, 해신계로 분류하고, 이러한 신당을 대상으로 한 당 신앙을 산신신앙, 농경.치병신신앙, 사신신앙, 도깨비신앙, 해신신앙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고찰한다. 문학이라는 측면에 너무 한정되었던 기존의 국어국문학과 논문들과 비교해 보면, 신앙이라는 본래의 측면에 좀 더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이끌어 나갔다는 장점이 인정된다.

문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너무 방만하게 흘러, 논문 전체가 민속학적 보고서적 성격을 짙게 풍긴다는 데 있다. 때문에 각 장의 소결을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소 상투화된 결론 이외에 다른 변별적이거나 논의의 핵심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연구 대상에의 접근이 너무 공시적인 측면에 치우쳐 역사적인 접근이나 해석이 미비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분류 자체의 기준도 통일적이지 않고 각 당의 특성들을 모아 분류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신신앙과 도깨비신앙이 신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변별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산신신앙과 해신신앙이 농경.치병신신앙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어 서술될 수 있는지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아마 연구자는 자료의 실상이 그렇다고 항변할 것 같은데, 자료의 모든 면을 늘어놓고 보여주는 것이 꼭 좋은 연구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필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논문의 핵심은 8장 '당 신앙의 유기적 상관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부분의 서술은 총설적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분석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연구자는 산신신앙과 해신신앙을 원초적 신앙 형태로 보고, '산신신앙은 한라산에서 솟아나 한라산을 떠돌아다니며 사냥하던 조상을 모시는 신앙으로 토착문화를 표현한다. 그러나 외래신이 가지고 온 농경문화, 즉 유입문화의 영향으로 농경.목축신앙으로 바뀌면서 본향당 신앙을 완성하였다'(233-234면)고 했는데, 이런 분석은 을나신화[4] 분석을 비롯해 익히 들어오던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별다른 논거 없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유교식 제사를 남성신앙으로, 무속적 당굿을 여성신앙으로 나누는 것도 너무 도식적이라는 혐의가 든다. 연구자가 지적하다시피, 원초적 굿은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인데, 이후 분화 과정을 겪었다면 무엇인가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밝히고 분화의 결과를 설명하는

4) 종래의 삼성신화를 여기서는 을나신화라고 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경수(1999,1994)에 잘 나와 있다. 뒤에 다룰 정진희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필자도 박사 과정 시절(1997년도) 유영대(고려대) 교수 지도 무가.민요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한 후, 줄곧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것이 순리로 보이는데[5], 겉으로 드러나는 현재적 특징을 너무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본향당 신앙을 중심신앙으로, 기타 사신신앙 등을 주변신앙으로 구분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

구조.기능주의 관점의 설명 체계는 기존에 존재하는 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소 보수적이고 일반적인 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 당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층적인 구조적 성격을 세밀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당신과 신앙민과의 관계는 영구적 관계이든 일시적 관계이든 마을 공동체를 유지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256면)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본 논문은 대단히 성실하게 쓰여진 노작임에 분명하다. 본풀이 분석을 위주로 하는 문학 연구의 틀을 넘어서, 신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점도 다시금 주목된다. 최근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출판까지 되었으니, 많은 이들이 읽고 그 성과를 공유했으면 하는 심정 간절하다.

3. 강정식의『제주도 당신 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강정식은 1988년 제주 무가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이 분야 연구를 지속해 온 중견 학자이다. 여럿이 관련 연구서를 쓰기도 하고[6], 많은 자료집을 만들기도 했다. 2002년에 제출된 박사 학위 논문은 그 동안의 연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중간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에 대하여 다룬다.'(1면) 특히 '당 신앙과 본풀이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전승과 변이를 다루고, 본풀이에 누적된 적층의 면모를 들춰내기 위하여 노력(3면)'한다. 앞서 살펴 본 문무병의 논문과 비교해서 보면, 본풀이라는 문학 텍스트 자료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역사적 변이 양상에 유의한다는 차별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신당이 분리될 때는 기존 신당의 본풀이를 모델로 삼아 이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본풀이가 형성된다. 당이 통합될 때에는 개별적으로 전승되던 본풀이가 결합되는 변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앙의 변화에 따라 신들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계보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보화의 전통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신앙권 내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231면)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기존 자료집과 본인의 답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계보를 비교적 뚜렷하게 전승하고 있는 당신본풀이를, 다음의 네 유형으로 압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발원처를 지역별로 다시 정리하면, 제주도 전 지역을 크게 넷으로 나눈 것과 일치'(49면)한다고 했다.

① 송당계 당신본풀이
② 한라산계 당신본풀이
③ 예래계 당신본풀이
④ 금악계 당신본풀이

---

5) 이후 검토하는 정진희는 이런 문제를 '권력' 혹은 권력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현상 모두를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설명틀을 다듬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겠다.

6) 김헌선.현용준.강정식, (2006) 등이 그것이다.

이의 관련 양상을 검토한 결과, '본래 한라산계가 중심을 이루며, 여기에서 송당계와 일뤳당계의 계보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오늘날에는 송당계가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전체의 계보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계보는 당신본풀이의 전승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의 주요 계보는 지역적인 변이 양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 계보에 속하는 당신본풀이의 변이 방향을 규정하는 구실도 하였다.' (232면)

구비문학이나 민속학 연구에서 제일 힘든 부분의 하나가 역사적 연구 즉 통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역사적 변모를 보여주는 자료 자체가 극히 영세할뿐더러, 남아 있는 자료가 마치 지층처럼 중층화되어 있으므로, 그 소종래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 본 논문의 작업 과정과 결론은 우선 연구사적 의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계보화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본풀이 분석에 이른다.

당신본풀이는 신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풀이 분석의 틀이 '신격'과 그것의 변모 양상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남성신 본풀이로서는 산신 본풀이, 여성신 본풀이로서는 해신 본풀이가 원형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남성신의 성격은 수렵신에서 장수신으로, 여성신의 성격은 농경신에서 치병신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모는 중심 신앙의 교체와 맞물려 있는'(232면)것으로 보인다.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본 연구가 이전 문무병 연구에서 보이던 미비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라는 것이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을 가지는 것은 매우 소중한 덕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도 큰 미덕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특히 유의하고 검토한 장은 '제4장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의의'(155-230면)이다. 일찍이 장주근은 제주도의 을나신화의 근원이 무가이었음을 제기하였다.[7]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구비신화의 문헌신화화 과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굿판이 아닌 일반 이야기판에서 본풀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수용되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다. 이에 구전설화, 고소설 등의 자료와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세경본풀이>의 문제를 논하면서, 권태효, 최원오 등의 연구자가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는데(166면 각주 218번), 이는 연구자의 접근 시각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세경본풀이>는 당신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의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된다.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 을나신화는 송당계의 백주또본풀이와 문국성본풀이의 결합형을 중점적으로 수용하되 한라산계의 화소들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233면)이라 할 수 있다.

인용이 부족한 듯도 하지만, 결국 이상의 내용들은 본풀이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그것의 계통을 규명하고자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박경신(1991)의 연구 이후, 무가 사설의 작시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자들간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것의 구체적 양상을 현장에 즉해 밝혀내는 것인데, 제주도 무가의 경우, 강정식의 연구 특히 제4장의 내용 분석이 그 전범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족이지만, 이 연구는 문체가 상당히 깔끔하다. 연구 논문은 우선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이야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글쓰기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장점이 단연 돋보인다.

---

7) 1989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장주근의 일련의 연구에 대해서는 요약적으로나마 필자가 검토한 바 있다. 한창훈(2000:290-293)

그런데 연구자의 인지도에 비해 볼 때, 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논문들을 구해서 읽어 보기가 쉽지 않다. 이미 출판되었거나 출판 예정인 다른 연구자들 논문과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더하다. 멀지 않은 장래에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강정식의 논문들을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8)]

4. 정진희의『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정진희(1999)는 제주도 무가에 관한 첫 연구인 석사 논문에서 '제주도 당신 본풀이의 통시적 변천 양상을 단위담과 시대적인 특성을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하여 '제향경위담 확대형 본풀이는 탐라국 이전 공동체의 병존 상태이던 시기에 형성되었고, 공동체 간의 세력 확대가 발생하면서 갈등 위주의 당신내력담이 생겼으며, 제주도의 주변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험담 확대형 당신본풀이가 형성되고 중앙지배 체제가 확고해진 시기에 이르러 마을 영웅 당신내력담 중심의 당신내력담 확대형 당신본풀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석사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적이면서도 통시적 접근을 지향하고 나름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설명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논의 전개상의 무리와 성급한 일반화의 조급함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는 같은 대상을 논의한 강정식의 앞의 논문에 잘 나와 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박사 논문[9)]에서 정진희는 제주도와 미야코지마의 신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제는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로 되어 있어, 신화의 변천 양상을 추적하는데 권력 관계를 중심축으로 살피고, 양 지역의 신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조동일(1997)의 선행 연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주도 무가 연구에서 비교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학자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한반도 본토 무가와의 비교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 중에서도 류쿠 지역 무가와의 비교 연구는 그 자체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야코지마〔宮古島〕는 일본의 최남단 현인 오키나와현(예전의 류쿠 지역)에 속한 작은 섬이다. 때문에 이곳에 전승되는 신화가 제주도 신화와의 비교 대상으로 적절한 것인가하는 문제가 우선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구자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먼저 류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경우, 인류학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류쿠에 대한 비교 연구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10)] 이 중에서 문학 연구자는 김헌선, 좌혜경 정도인데, 여기에 정진희가 가세한 것이다. 정진희의 경우, 원래부터 제주도 무가를 중심으로 공부했고,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일본 류쿠 대학에 체류하며 현지 조사에 임했으므로, 비교 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는 나름대로 이루어진 편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현상의 집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

8) 중요한 제주도 무가 연구자인 이수자의 경우도 예전에는 주요 연구를 학위 논문 형태로밖에 볼 수 없어 불편했으나, 이후 출판되어 연구자들의 수고를 크게 줄여 주었다.

9) 이 연구는 최근 서남학술재단의 지원으로 곧 출판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10) 연구 결과가 주로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에서 펴내는『비교문화연구』6.7집(2000-2001)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참여한 연구자를 대략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측 발표자는 대부분 제주학회원들이다. 김동전, 김헌선, 유철인, 이문웅, 이청규, 전경수, 정광중, 좌혜경, 한상복, 다까미야 히로에이, 우에하라 시즈카 등.

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질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주체와 객체의 문제도 있고, 비교의 준거 설정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 때의 비교 대상은 국내의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국내를 벗어날 수도 있으며, 같은 지역의 시간적 비교도 있을 수 있다.[11)]

강정식의 앞의 연구가 같은 지역의 시간적 비교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면, 정진희의 본 논문은 국내를 벗어난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다. 비교의 준거는 '외부 권력'의 간섭이다. 즉, '제주도와 미야코지마는 각기 독자적 문화와 지배 체제를 갖추고 있다가 바다 멀리에서 건너온 발전한 정치 체제인 국가에 의해 그 일부로 복속되었다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데'(8면), 이러한 조건을 '외부 권력'의 간섭이라 규정한 것이다.

문학과 권력, 특히 신화와 권력의 상관 관계는 주요 연구 주제의 하나가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문학과 권력이라는 주제는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명시적이든 혹은 묵시적이든 간에 문학영역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따지고 보면, 문학이란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한 시대가 사회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창훈, 2008: 276-301)

본 논문에서는 외부 권력에 대한 신화적 대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호족 집단의 신화로 본다. 조선 초 제주도 호족 가문의 일원으로 중앙 관직에까지 진출하였던 고득종이 남긴 「서세문」의 을나신화와, 미야코지마가 류쿠에 복속될 무렵 주도적 역할을 했던 나카소네 토요미야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련의 신화가 바로 그것이다. 두 지역의 호족 신화는 외부 권력의 간섭이라는 역사적 조건에 처했을 때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담론으로 기능한 것이다.

제주도에 대한 조선의 직접 지배가 확립되면서, 제주도의 고씨 가문은 제주 내부에서 구현되는 정치 권력에서도 소외되어 갔다. 이에 비해 미야코지마의 호족 집단은 내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류큐 왕조는 미야코지마에 대한 호족 가문의 영향력을 인정하였고, 구라모토라는 지방 행정청이 설치된 이후에도 그 주요 직책을 호족 가문에 맡겼다.

두 지역의 호족 신화는 이러한 권력 구도의 재편과 그에 따른 호족 집단의 정치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었다. 제주도 호족이 기록한 신화와 조선이 기록한 신화는 그 신화적 의미가 같지 않다. 반면 미야코지마의 호족 신화는 류큐 왕조측에서 기록한 호족 신화와 그 신화적 의미가 거의 일치한다.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결국 두 지역 신화가 하나의 삶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의 '담론'으로 기능'했음을(180면) 지적하고, '신화는 집단적 문제제기에 따른 합의를 도출하고, 그를 통해 주어진 현실을 재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것'(181면)이라 결론을 내린다. 이처럼 신화는 권력과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더욱 의미있는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본 논문의 이러한 논의 전개 방식과 그 결론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다. 일본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미야코지마 신화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설명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를 할 입장에 있지 않으나, 문면에 드러난 서술상의 모순점이나 무리한 해석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제주 신화와의 비교와 대조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흥미 있는 논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

11) 제주학에서의 비교 연구에 대한 문제점은 한창훈(2008:40-43), 전경수(1999)를 참고할 것.

필자는 논문 말미에 드러나는 '주변부' 논의에 주목한다. 아쉽게도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 동안에도 제주 문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온 현길언은 '주변성'을 중심 특징으로 들었고[12], 김영화(2000)는 '변방인'이라는 말을 표제로 내세웠다. 이후 이런 용어나 그 개념에 대해 (학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다. 연구자의 언급처럼, 제주도 무속과 무가 연구에 있어서도 '비교의 대상을 확장하고, 기존 연구 결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일반 이론으로 만들어야 하는'(181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문의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지만, 문무병, 강정식, 정진희의 논의는 그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연구의 대상이나 방법이 보완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토마스 쿤은『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유명한 '패러다임' 논의를 통해 과학 연구의 점층성 보다는 혁명성을 강조했지만, 연구라는 것은 그 본질상 중층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특히 인문학에 속하는 연구에서 이런 보완과 확장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제주도 무속과 무가 연구가 지금처럼 활성화되는데, 1세대 학자들의 기여를 빼놓을 수는 없다. 김열규, 서대석, 장주근, 현용준 등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특히 현용준의 기여와 영향력은 여기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도 하다. 거의 평생을 바쳐 이 분야의 자료 수집과 해석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그는, 2005년 그동안의 자신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풀지 못했던 의문점만을 모아 출간했다. (현용준, 2005)

이 책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평생 의문을 품었으면서도 풀지 못했던 내용들이 수수께끼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필자는 이 책에 나타난 의문이 후속 연구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사실 연구를 처음 시작하려면 문제의식을 갖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 되는데, 제주도 무속과 무가 연구에는 이런 짐이 상당 부분 덜어졌다고 생각한다.

학문 연구에서 새로운 영역이나 방법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기존에 풀지 못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확장 등의 방식으로 문제 의식을 더욱 다듬어가는 작업도 필요할뿐더러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제주도 민속과 무가 연구도 더욱 넓어지고 축적되어, 세 번째 검토 논문을 쓰게 될 때는 이 점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정식,『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 논문, 2002)
강정식,『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 논문, 1988)
김영숙,『제주도 일반신 본풀이의 신격화 연구』(전북대 박사 논문, 2002)
김영화,『변방인의 세계 : 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김헌선.현용준.강정식,『제주도 조상신 본풀이 연구』(보고사, 2006)
문무병,『제주도 당 신앙 연구』(제주대 박사 논문, 1993)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민속원, 2008)
문무병,『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제주대 석사 논문, 1984)
박경신,『한국 무가의 역사와 작시 방법』(울산대학교 출판부, 2008)

12) 그의 연구는 다음의 단행본에 집대성되어 있다. 현길언(2001) 참조.

박경신,『무가의 작시 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서울대 박사 논문, 1991)
유달선,『제주도 당신 본풀이 연구』(대구대 박사 논문, 1994)
이수자,『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집문당, 2004)
전경수,「제주학:새로운 지역 연구의 실험장」,『지역연구, 어떻게 하나』(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전경수,『한국문화론-전통편』(일지사, 1999) 266-279면,
전경수,『한국문화론-상고편』(일지사, 1994) 188-239면.
정진희,『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서울대 박사 논문, 2008)
정진희,『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서울대 석사 논문, 1999)
조동일,『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 1997)
한창훈,「문학과 권력」,『문예연구』56집 (문예연구사, 2008년 봄) 276-301면.
한창훈,「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탐라문화』3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40-43면.
한창훈, 「제주도 무가 연구의 검토와 전망」, 『백록어문』 17집 (백록어문학회, 2000) :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월인, 2000)
현길언,『제주문화론』(탐라목석원, 2001)
현용준,『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집문당, 2005)

<『제주도연구』30집, 2009>